



보도시점 2024. 4. 9.(화요일) 배포 2024. 4. 9.(화요일)

재외동포청, 4월30일~5월3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- 20개국 70명의 차세대 리더 방한, 한국 발전상 알리기 동참 방안 모색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오는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‘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’를 개최한다.
 - 이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(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알리기 등)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동포가 한인 리더로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열린다.
- 올해 대회에는 세계 20개국에서 7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가한다.
 - 강운선(34) 미국 회계감사원 국제문제분석가를 비롯해 최종민(30) 로스앤젤레스 경찰국(LAPD) 수사관이자 미국 법집행관협회 이사, 한민수(42) 조지아대 부교수 겸 아시안국제영화제 위원, 성경주(44) 독일 입양한인이자 경영컨설턴트, 유강희(40) 브라질 팟캐스트제작자, 강상우(30) 한식전문 요리사가 고국을 찾는다.
 - 또 남아프리카 유일 한인 치과의사인 송채은(28)씨, 카자흐스탄 심장외과의사인 라브렌유크 올레그(40)씨, 영국 마취학과과의사인 박세정(31) 재영한인 의사협회 부회장, 중국 상하이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인 김수복(43) 변호사, 북경이공대학 법학과 이화(45) 교수 등도 명단에 올랐다.
- 대회에 참가하는 차세대 리더들은 한국 문화체험 및 산업시설 방문, 국무총리공관 방문,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사례발표,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및 해외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역할과 방안에 대한 토론 등

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,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식을 심화시키고, 모국과의 실질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.

□ 이기철 청장은 “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발전상 및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, 한국의 발전상 교육과 해외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에 동참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붙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주요일정(안)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인권과	책임자	과장	김채영	032-585-3213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동	032-585-3214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I. 대회개요

□ 기 간: 2024. 4. 30.(화) - 5. 3.(금) <3박 4일>

□ 장 소: 서울(웨스틴 조선 호텔)

□ 인 원: 70명

□ 주요 프로그램

- 공식 행사(개,폐회식) 및 연회
- 기조 강연
- 정부 기관 방문(국무총리 공관 등)
- 토론 및 네트워킹 : 분야별/지역별 토론, 주류사회 진출 경험 나눔 등
- 산업 시찰 및 문화 체험 등

II. 주요일정(안)

구 분	4월30일(화)	5월1일(수)	5월2일(목)	5월3일(금)
09:00-10:00			분야별 토론(Ⅰ)	글로벌인재사업 설명회(인사혁신처)
10:00-11:00		국무총리 예방		종합토론
11:00-12:00			오찬	
12:00-13:00				오찬
13:00-14:00	등록	산업시찰 및 문화체험	분야별 토론(Ⅱ)	체크아웃 및 해산
14:00-15:00	오리엔테이션			
15:00-16:00	체크인			
16:00-17:00	개회식			
17:00-18:00	기조강연		지역별 네트워킹	
18:00-19:00	환영만찬			
19:00-20:00	네트워킹			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